

**담당 : 홍보팀 임정수 차장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‘메디힐 · 한국일보 챔피언십’ 우승자 공식 인터뷰**

**홍정민(29언더파 259타 우승)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메디힐 · 한국일보 챔피언십 |
| 2 | 기 간 | 2025년 8월 14일(목) ~ 8월 17일(일) |
| 3 | 장 소 | 몽베르컨트리클럽 [가을(OUT) / 겨울(IN)] |
| 4 | 주 최 | 메디힐, 한국일보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610야드-예선, 6,544야드-본선 |
| 8 | 참가인원 | 123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박지영, 이예원, 박현경, 방신실, 홍정민, 노승희, 이동은, 고지우, 이가영  김민선7, 김민주, 정윤지, 박혜준, 배소현, 유현조, 김시현, 송은아, 서지은  이다연, 김아림, 안나린, 최혜용, 성아진(A)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30분  [2라운드] 11시 ~ 17시30분  [3라운드] 09시30분 ~ 16시  [최종라운드] 09시30분 ~ 16시 |

**◈ 홍정민, 최종합계 29언더파 259타(65-64-65-65) 우승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750>

**[홍정민 우승 관련 주요 기록]**

**- 홍정민, 2025시즌 2승(이예원, 방신실에 이어 시즌 3번째 다승 기록), 통산 3승**

cf. 홍정민 우승 대회: 2022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(2022), 크리스에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(2025)

**- 29언더파 259타로 12년 만에 KLPGA투어 역대 최소 스트로크 우승 기록 경신**

\*종전 기록: 23언더파 265타(2013시즌 김하늘 MBN 김영주골프 여자오픈)

cf. 타이 기록: 유해란(2020 제주삼다수 마스터스), 이정민(2024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)

**- 와이어투와이어 우승: 2025시즌 다섯 번째, 역대 113번째**

cf. 타이 기록: 유해란(2020 제주삼다수 마스터스), 이정민(2024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)

**- 5번 홀, 17번 홀 보기로 KLPGA투어 역대 최초 72홀 노보기 우승 기록 달성에는 실패**

**[각종 공식 기록 변동 사항]**

- 위메이드 대상포인트: 홍정민 287pt(5위) → 357pt(2위)

- 상금순위: 718,926,667원(2위) → 898,926,667원(1위)

- 신인상포인트: 1-3위 변동 없음(1위 김시현, 2위 송은아, 3위 서지은)

**[우승자 인터뷰(자료 제공 – 대회조직위원회)]**

**Q. 경기 소감 / 우승 소감 / 72홀 최소타 경신 소감**

기록보다도 우승의 순간이 다가오면 너무 긴장이 된다. 전날 밤은 거의 밤을 새웠는데, 마음가짐을 다잡고 가진 것을 다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. 72홀 기록 경신은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. 두 타만 더 줄이면 기록을 경신한다고 들었는데, 샷 감과 퍼트 감이 좋아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. 기록 타수보다 훨씬 많은 타수를 기록해서 기분이 좋았다.

**Q. 언제부터 욕심이 생겼는지?**

계속 욕심은 없었다. 우승에 대해 욕심이 생길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긴장이 돼서, 하던 대로 감사하며 플레이를 했다.

**Q. 4라운드 동안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?**

31개의 버디를 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퍼트다. 그러나 이번 코스에서 샷에 집중하려고 했다. 코스 그린에 결이 있어서 가까이 갈수록 확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었다. 샷에 신경을 많이 썼다.

**Q. 지난번 우승했을 때 아팠다고 들었다. 아픈 것은 다 나았는지?**

완벽하게 나았다고 생각한다. 아쉬운 것은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. 80%정도 올라왔고, 20%정도는 체력 훈련을 통해 보충 중이다. 전지훈련 때도 체력 훈련에 집중을 하려고 한다.

**Q. 올해 기록이 전체적으로 좋다. 경기력이 좋아진 이유는 지난 겨울 훈련 때의 비결이 있는가?**

전지훈련보다는, 작년 시즌을 버텼다는 사실만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다. 골프를 그만두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견디기 힘들었다. 정신력으로 버텼다기 보단 피치못할 사정으로 버텼는데, 버티고 보디 더 강해졌다. 버티는 게 습관이 됐다.

**Q. KLPGA 챔피언십 우승 때의 경험이 오늘의 우승에 도움이 되었나?**

그 때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. 그 당시에는 타수 차이가 좀 있어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유지하며 가려고 했고, 이번엔 보여드릴 수 있는 샷을 다 보여드리려고 했다. 타수보다는 경기력을 위주로 생각을 했다.

**Q. 3번의 우승이 있는데, 이번 대회가 본인에게 있어 최고의 우승인지?**

그렇다. 하지만 보기 2개가 정말 아쉽다. 노보기라는 것을 의식을 한 것이 긴장감을 유발해서 놓친 것 같다.

**Q. 다승을 했다. 올시즌 소감과 미래의 계획?**

간단한 목표는 도움이 되는데 먼 미래를 계획하는 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. 목표가 되기도 하지만 부담이 되기도 한다. 앞으로도 계속 1승을 목표로 해 나갈 예정이다.

**Q. 상금왕이나 다승왕 같은 타이틀에는 생각을 하지 않는지?**

하면 좋겠지만 연연하고 싶지는 않다. 잔디를 밟고 플레이를 하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있다. 그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 부분은 따라올 것이라 생각한다.

**Q. 대회장 코스의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잘 맞았는지?**

페어웨이를 잘 지키는 게 중요했다. 대회장에 맞게 공략한 부분은 세컨드 샷을 핀 뒤로 지나가지 않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. 파5홀에서 페어웨이를 지키는 게 가장 주효했던 것 같다. 파5홀에서 찬스를 놓치면 성적을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.

**Q. 이번 대회를 앞두고 잔디가 바뀌며 예전의 파3와는 달라졌는데, 골프장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던 점?**

특별히 없었다. 잔디가 바뀌고 상태가 좋아졌다. 양잔디일 때보다 공이 더 떠있어서 탄도를 높게 띄우기가 수월했고, 샷을 더 가까이 붙이기 쉬웠다.

**Q. 29언더파는 남자 대회에서도 나오기 힘든데, 이게 본인에게 어떤 의미?**

20대 타 언더파는 처음인 거 같다. 특히 20대 후반, 29언더파는 믿기지 않는 숫자다. 또 다시 이런 타수를 만들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, 보기 2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. 자부심을 갖게 할만한 스코어인 것 같다.

**Q. 올 시즌을 마쳤을 때 어떤 상을 받고 싶은지?**

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금왕이라고 생각한다. 남은 대회가 많아서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.

**Q. 하반기에 특별히 우승하고 싶은 대회가 있는지?**

하나금융대회에서 우승을 해보고 싶다. 예전에 와이어 투 와이어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다. 오늘 기록을 바탕으로 도전해보고 싶다. 제일 좋아하는 코스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베어즈베스트를 말했다. 양잔디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 구장에서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.

**Q. 우승은 중지에서 했다. 둘 중 어떤 잔디를 더 선호하는지?**

둘 다 잘 할 자신은 있다. 그래도 양잔디가 확률적으로 좋았던 기억이 있다. 양잔디는 디보트를 냈을 때 잔디 뿌리가 걸리는 느낌이 별로 없다. 마음껏 다운블로우 샷을 칠 수 있고, 다이나믹한 코스 공략이 가능해서 선호한다.

**Q. 이번 대회 유달리 드라이버 볼이 늘지 않았는지?**

오히려 이번주가 거리가 안 나갔다고 생각한다. 해외 대회 후에 연습을 잘 못했다. 감을 다 끌어올리지 못해서 80% 정도로만 했던 거 같다.

**Q. 해외 진출에 대한 생각과 계획?**

항상 해외에 대한 꿈은 있다. 혼자 힘으로 가기에는 많이 힘든 곳이기에 잘 상의를 해보고 결정할 예정이다.

**Q. 미국에 가서 이루고 싶은 게 있는지?**

올림픽 금메달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다.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. 모든 것은 올림픽 금메달로 가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. 국가대표 시절 때 ‘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?’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생각했다. LPGA 진출해 우승을 하고자 하는 것도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 금메달을 따고 싶기 때문이다.

**Q. 긴장을 많이 했다고 했지만, 타 선수들과의 기량차가 압도적이었다. 본인이 우승을 확신했던 순간?**

후반 들어가면서 우승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. 그 전에는 안심을 못했는데, 전반이 잘 풀렸고 10번 홀에 버디가 나와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

**Q. 오늘 이곳에서 엄청난 스코어를 냈는데, 본인에게 1위 골프장이 바뀌었는지?**

공동 1위로 하겠다.